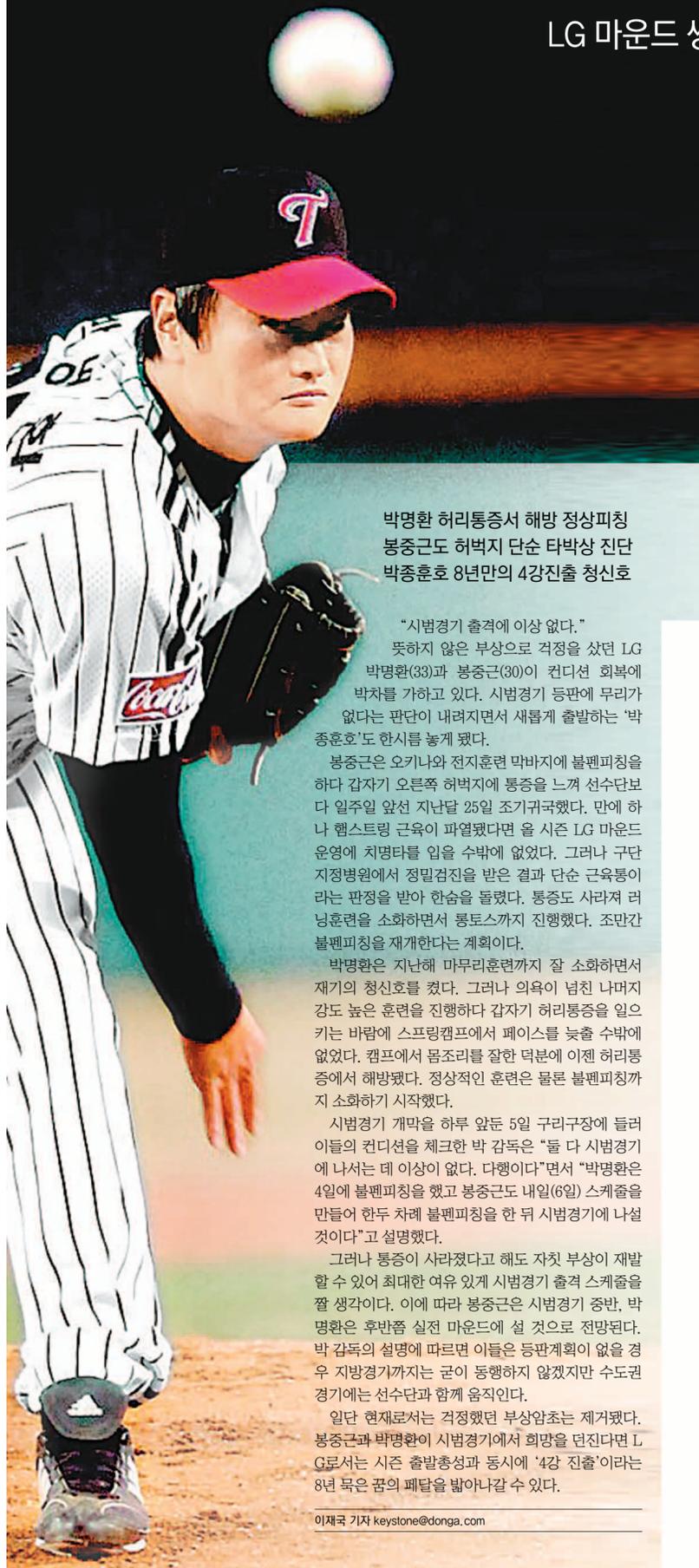


반갑다 야구야... 오늘 시범경기 '플레이볼'

박명환·봉중근 “시범경기 OK!”

LG 마운드 쌍두마차 부상 털고 출격 준비



박명환 허리통증서 해방 정상피칭
봉중근도 허벅지 단순 타박상 진단
박중훈호 8년만의 4강진출 청신호

“시범경기 출격에 이상 없다.”

뜻하지 않은 부상으로 걱정을 샀던 LG 박명환(33)과 봉중근(30)이 컨디션 회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범경기 등판에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새롭게 출발하는 ‘박중훈호’도 한시름 놓게 됐다.

봉중근은 오기나와 전지훈련 막바지에 불펜피칭을 하다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통증을 느껴 선수단보다 일주일 앞선 지난달 25일 조기귀국했다. 만에 하나 햄스트링 근육이 파열됐다면 올 시즌 LG 마운드 운영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구단 지정병원에서 정밀검진을 받은 결과 단순 근육통이라는 판정을 받아 한숨을 돌렸다. 통증도 사라져 러닝훈련을 소화하면서 통토포까지 진행했다. 조만간 불펜피칭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박명환은 지난해 마무리훈련까지 잘 소화하면서 재기의 청신호를 켜다. 그러나 의욕이 넘친 나머지 강도 높은 훈련을 진행하다 갑자기 허리통증을 일으키는 바람에 스프링캠프에서 페이스를 낮출 수밖에 없었다. 캠프에서 몸조리를 잘한 덕분에 이젠 허리통증에서 해방됐다. 정상적인 훈련은 물론 불펜피칭까지 소화하기 시작했다.

시범경기 개막을 하루 앞둔 5일 구리구장에 들러 이들의 컨디션을 체크한 박 감독은 “둘 다 시범경기에 나서는 데 이상이 없다. 다행이다”면서 “박명환은 4일에 불펜피칭을 했고 봉중근도 내일(6일) 스케줄을 만들어 한두 차례 불펜피칭을 한 뒤 시범경기에 나설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증이 사라졌다고 해도 자칫 부상이 재발할 수 있어 최대한 여유 있게 시범경기 출격 스케줄을 짤 생각이다. 이에 따라 봉중근은 시범경기 중반, 박명환은 후반쯤 실전 마운드에 설 것으로 전망된다. 박 감독의 설명에 따르면 이들은 등판계획이 없을 경우 지방경기까지는 굳이 동행하지 않겠지만 수도권 경기에는 선수단과 함께 움직인다.

일단 현재로서는 걱정했던 부상암초는 제거됐다. 봉중근과 박명환이 시범경기에서 희망을 던진다면 LG로서는 시즌 출발총성과 동시에 ‘4강 진출’이라는 8년 묵은 꿈의 패달을 밟아나갈 수 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LG의 주력투수 봉중근(위)과 박명환(큰사진)이 부상을 털고 시범경기 출격에 나선다. 스프링캠프에서 각각 오른쪽 허벅지와 허리통증을 호소했던 두 투수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몸상태를 끌어올려 박중훈 감독을 안심시켰다. 스포츠동아 DB

“여성팬들 화장 고치세요”
문학구장에 파우더룸 설치

문학구장이 환경친화적이지 여성친화적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SK는 5일 ‘프로 스포츠 최초로 운동장 안에 파우더룸을 설치했다’고 발표했다. 여성전용 휴식공간인 파우더룸의 개설로 문학구장을 찾는 여성팬들은 화장을 고치려 굳이 화장실까지 찾는 수고를 덜게 됐다. 1루 1층 복도에 23평 규

모로 만들었고, 여성관중 누구나 무료입장이 가능하다.

파우더룸에선 SK 야구를 볼 수 있도록 TV를 설치해놓았다. 또 초보 여성 팬을 위해 내부에 야구관련 서적까지 마련해놨다. SK는 “백화점 쇼핑물 극장처럼 여성이 즐겨 찾는 공간은 파우더룸을 만들어 야구장을 찾는 여성팬들의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2010년 시범경기 일정 (3월) ※ 전 경기 오후 1시 개시. 무료 입장

날짜	잠실	목동	문학	대전	대구	사직	광주
6~7일		LG-넥센	두산-SK	롯데-한화			삼성-KIA
9~10일		두산-넥센	LG-SK	KIA-한화	롯데-삼성		
11~12일			롯데-SK	두산-한화	LG-삼성		넥센-KIA
13~14일		LG-두산		넥센-SK	한화-삼성		롯데-KIA
16~17일		삼성-두산			넥센-한화	LG-롯데	SK-KIA
18~19일		한화-LG			SK-삼성	넥센-롯데	두산-KIA
20~21일		KIA-LG		한화-SK	넥센-삼성	두산-롯데	

천호식품

남자에게 참 좋은데~ **프리미엄 산수유1000**

왜 좋은지 궁금하다면?
080-789-1005

‘日 코치연수’ 송진우 본지에 칼럼 연재

일본야구 생생 경험담 이달말부터 소개

‘회장님’의 글 솜씨는? ‘한화의 살아있는 전설’ 송진우(44·사진)가 스포츠동아를 통해 칼럼니스트로서 또 하나의 데뷔전을 치른다. 5일 한화 구단의 지원 하에 지도자 연수차 일본으로 출국한 송진우는 2010시즌 일본의 최고명문 구단인 요미우리 2군에서 보고 듣고 느낀 살아있는 경험들을 스포츠동아 지면에 고스란히 담을 예정이다.

현역 21년 동안 한화 한 팀에서만 뛰 송진우는 672경기에 출전해 210승 153패 103세이브 204탈삼진의 금자탑을 쌓았다. 투구이닝만



3003이닝에 달하고 1만 2708타자를 상대하며 4만9024개의 공을 던진 불멸의 대투수다. 타고난 성실함과 카리스마로 뽀뽀 뽀뽀 그이지만 신문에 칼럼을 연재하는 것은 생애 최초의 도전이다. 송진우는 “1989년 프로 데뷔전에서 완봉승을 거뒀는데 글은 처음 쓰는 거라서 많이 떨린다”고 했다. 송진우가 전하는 일본야구 스페셜 칼럼은 ‘이글 아이 in Japan’으로 3월 말부터 게재된다.

편집 |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희망보다 더 값진 메달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보았습니다
흘린 땀의 가치를, 꿈을 향한 열정을
그리고 메달보다 더 값진 희망을!

KB가 대한민국 희망을 응원합니다

KB  금융그룹

KB금융그룹 KB 국민은행 KB 투자증권 KB 생명 KB 저산은행 KB 부동산신탁 KB 인베스트먼트 KB 신용 KB 신용정보 KB 데이터시스템